

# 공공 산업재해 병원 건립 '첫발'

### 익산시, 연구용역비 2억원 올해 정부 예산 반영... 철도·도로망 잘 갖춰 지리적 이점도

익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산업재해 병원 건립 사업이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 정부 예산 반영에 성공하며 첫발을 뒀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신규사업이 통과되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마지막 국회 심의단계에서 공공산업재해 병원 예산이 통과됐다.

공공산업재해 병원 건립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전국에 10개 병원과 3개 의원이 있으나 전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전북권 회복기(아금성기) 산재 환자들은 대전이나 전남 순천에

있는 병원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해 경제·시간적 부담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시는 지난해 '전북 산재전문병원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8개월 동안 진행하고 익산에 산재 전문병원이 건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했다.

우선 철도와 광역 도로 등 교통 기반을 잘 갖춘 익산시는 전주와 군산, 김제, 완주 사이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또한, 전북 인구 77%를 차지하는 북부권 지역의 중심에 있는 만큼 어느 지역에서도 산재 환자의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인근에 새만금과 전주탄소, 완주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있어 산업재해 환자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이번에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안이 반영된 만큼 고용노동부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25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공공산업재해 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막 기초단계에 들어선 만큼 건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책자형 주소정보안내도 제작·배포

군산시가 최신 주소정보가 반영된 주소정보안내도를 제작 배포하였다.

이번 주소정보안내도는 기존에 펼쳐보기 힘들었던 접지형 대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책자형으로 제작됐다

책자형으로 제작된 주소정보안내도는 목차에 행정구역을 번호표로 표시하여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지도에는 동서남북에 화살표를 넣어 연결성을 좋게 하였다

안내도는 군산시 전체와 시가지 확대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도로명주소 건물명 등 주소정보와 주요 행정기관, 보건진료소, 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도를 배부했다.

주소정보안내도가 필요한 주민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안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산시청 홈페이지(군산소개-행정구역/행정지도-주소정보안내도)에 주소정보안내도를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책자형으로 새롭게 제작한 주소정보안내도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25일까지 과수 영농부산물 파쇄 접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반기 과수분야 영농부산물 파쇄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논두렁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막아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과수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이나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과수전정 후 방치된 잔가지가 주요 파쇄 대상이다.

파쇄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파쇄지원단 운영 기간은 상반기 2~4월, 하반기 11~12월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행적으로 영농부산물이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소각 행위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지 않게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신원식 군산시 신임 부시장, 업무보고 시정 파악 돌입

### 10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역점사업·주요현안 점검

지난 2일 취임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신속한 업무 파악 및 당면 현안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소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5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경제항

만혁신국을 시작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일반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역점·주요 업무의 추진상황과 쟁점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는 일상적 업무 보고는 지

양하고, 2024년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역점사업, 부서별 중요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미래비전담당 정책개발담당 기획 담당을 두루 역임한 정책통으로 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산업·SOC 부문의 국가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사업 추진 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지방적 공무원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아닌 전북, 국가 차원의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을 넓히고 배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수를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자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

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2.12.31.)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재해구호협회,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시장 김일준)는 1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군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시대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및 재해 대비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다.

김일준 군산시장과 김정희 전국재

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활동 등을 위한 행정지원 협력 △의연금품 및 기부품품 모금과 지원 △이재민 편의 도모를 위한 각종 물자지원 등 구호활동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위협이 커지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실시

익산시가 치과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1월 중순부터 장애시설 4곳, 보육시설 2곳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소 치과 전문 인력이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연중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립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등 전반적인 구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효율적인 구강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소자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분들께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5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449명의 불소도포와 검진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도서관, '도담도담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위해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동안 영동, 부송, 유천, 금마, 황등도서관에서 겨울방학 도담도담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문화교실은 △아트 앤 캘리그래피 △지구촌 겨울 요리 교실 △호기심 가득 실험교실 △미리미리 잉글리시 등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17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lib.iksan.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신나는 도서관 프로그램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더욱 알찬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